주간 증시 브리핑

2026.2.2(월)

유진투자증권
리서치센터

Executive Summary

- **[증시요약]** 코스피는 트럼프의 관세 재위협에도, 1월 동안 24% 급등하며 5,200선에 도달함 (5,224p, 주간 +234pt, +4.7%). KOSDAQ도 정부 정책 기대로 자금 유입이 쏠리며 급등함 (1,149p, 주간 +15.7%). 한편 주말 美 트럼프 대통령이 매파로 알려진 케빈 워시 전 연준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하자, 美 달러는 반등(+0.9%)하고, 금(-11%), 은(-31%) 가격은 80년대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함.

- **[해외증시]** 美 증시는 금리 동결(3.5~3.75%)과 케빈 워시 차기 의장 지명에 혼조 마감 (S&P500 +0.3%, 나스닥 -0.2%). 日 증시는 엔달러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(153엔대) 약세 마감 (닛케이 -1%). 中 증시는 기술주 강세에도 본토증시 약세로 마감 (상해 -0.4%, 항셍 +2.4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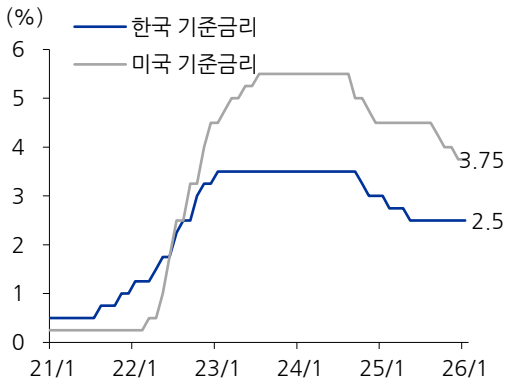
- **[시장전망]** 코스피 월간 24% 상승은 90년대 이후 4위에 달하는 기록. 과열 징후가 있음. 증시 자금 이동(1월 주식형 펀드 +23조원)이 가팔라짐. 하지만, 20~21년에 나타났던 '빚투'와는 거리가 있음. 상승세는 유효하나,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.

- **[주요일정]**
  - ① 美 1월 고용보고서(2/6일)
  - ② 韓 1월 소비자물가지수(2/3일)
  - ③ 유 ECB 통화정책회의(2/5일)
  - ④ 美 1월 ISM제조업 PMI(2/3일)
  - ⑤ 美 1월 ISM서비스업PMI(2/5일)
  - ⑥ 유 1월 소비자물가지수 (2/4일)
  - ⑦ 美 팔란티어, 알파벳, 아마존 등 실적 발표

구분		1/30	1W	1M
KOSPI	↑	5,224	4.7%	24.0%
S&P500	↑	6,939	0.3%	0.6%
DOW	↓	48,892	-0.4%	1.1%
닛케이225	↓	53,323	-1.0%	5.9%
상해종합	↓	4,118	-0.4%	3.9%
원/달러(원)	↓	1,440	-1.8%	0.0%
엔/달러(엔)	↓	154	-2.4%	-1.1%
국고채3년(%)	↑	3.138	3.137	2.95
국고채10년(%)	↑	3.607	3.590	3.39
미국채10년(%)	↑	4.24	4.23	4.12
WTI(달러/배럴)	↑	65.2	6.8%	12.5%
한5-yr CDS(bp)	↑	21.7	0.7	-0.1

CHART of the week

韓, 美 기준금리 추이



1 美 1월 FOMC 기준금리 3.75%로 동결(1/28일)

견조한 성장 속 동결, 추가 인하는 5월 이후 예상

- 美 연준은 1월 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함(3.5~3.75%). 10명 위원이 동결을 지지한 가운데 2명의 위원은 인하를 주장(월러, 마이런).
- 성명서에서 美 경제는 '완만한' 속도에서 '견고한' 속도의 확장으로 소폭 상향. 고용 증가는 여전히 낮지만, 실업률은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. 하지만 인플레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경계감을 유지함.
-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발언함. 관세를 제외한 물가는 2%로 수렴한다고 평가하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.
- 美 연준은 당분간 현 정책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. 추가 인하 시점은 새 의장 임기가 시작된 이후(6월)가 될 것으로 판단됨.

2 美 트럼프 한국산 제품에 관세 인상(1/27일)

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 통과 및 빠른 협상 필요

- 美 트럼프 대통령은 1/27일 무역 협정 미제정을 이유로 韓 자동차, 목재, 의약품을 포함한 상호관세를 15%에서 25%로 인상한다고 밝힘.
- 25년 10월 韓은 美 전략산업에 3,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함. 현재 쟁점은 재원 조달을 위한 정책기구 및 설립을 뒷받침할 법 재정임. 25년 11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수개월 동안 표류 중.
- 국회가 2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한편 對美 협상 채널을 가동함에 따라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
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대급 실적 (1/29일)

가격 효과 영향, 이후 모멘텀 지속 여부 관심

-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4분기 실적은 AI 메모리 사이클로 극대화됨.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20.1조원, SK하이닉스는 19.2조원으로, 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함.
- HBM 중심의 고부가 메모리 개선과 가격 상승에 기인함. 그러나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됨.
- 투자 확대 계획이 과도하지 않음. 실적 전망은 긍정적일 전망. 하지만 공급 부족이 길어질수록 고객들의 저항도 커질 위험도 공존함.
- 2026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가격을 비롯한 업황 전망은 우호적이나 하반기 증설 및 고객사 수급과 관련이 될 전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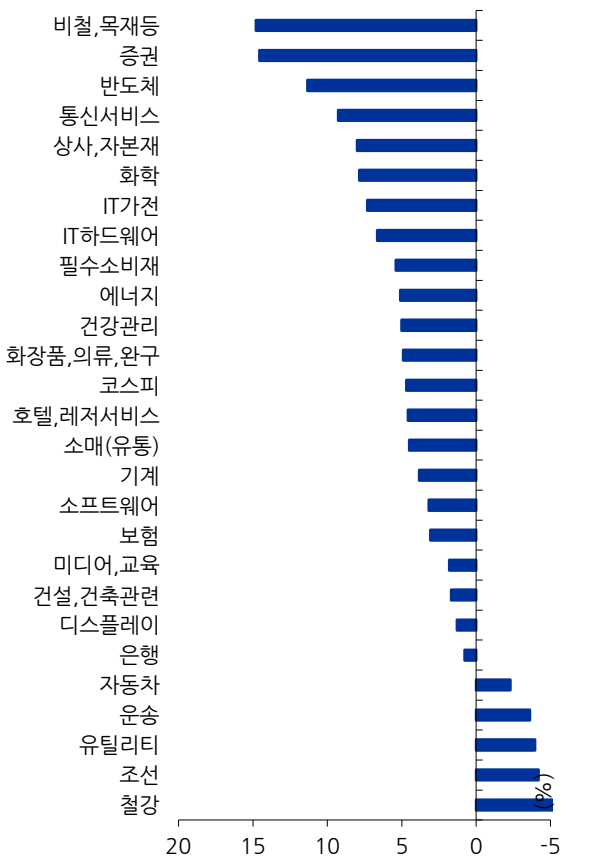
4 韓 채권시장 동향(1/26~30일)

환율 하락 불구하고 기타 요인에 약세

- 국고채 3년물 금리 3.138%(+0.1bp), 10년물 금리 3.607%(+1.7bp) 마감.
- 주 초반 금리 하락 출발. 美·日 외환 개입 가능성과 트럼프의 달러 발언, 국민연금 환헤지 비율 및 포트폴리오 조정 등에 환율 급락한 영향.
- 이후 코스피&코스닥 강세와 외국인 국채선물 대규모 매도, 차기 연준 의장에 케빈 워시가 지명될 것이라는 보도 등에 금리 상승 전환. 이창용 총재의 경기 상방 리스크 발언도 영향.

주요 이슈 / 경제 지표 전망 / 주요 일정

주간 업종별 수익률(1/30 기준)



주요 경제지표 예상(2/2 ~ 2/6)

美 1월 고용보고서(2/6일) → 완만한 고용 둔화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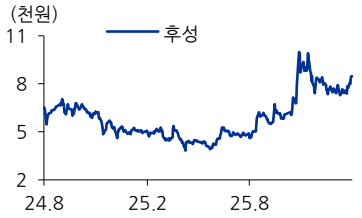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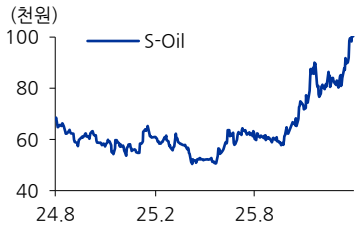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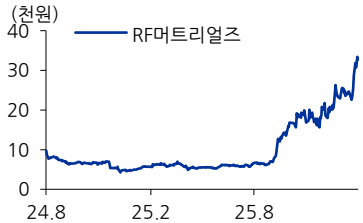
- 美 1월 비농업취업자는 +8.0만 명 증가하며 전월(+7.3만명) 대비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. 다만 실업률은 전월 수준은 4.4%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
- 연준은 1월 FOMC에서 고용 증가는 여전히 낮지만 실업률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. 고용 하방 위험은 다소 완화된 상황
- 현재 고용 감소는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및 이민 정책으로 인한 공급 감소와 관세 불확실성으로 많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임
- No hire, No fire의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.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는 24년 초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고용 시장은 완만한 둔화세를 지속할 전망

美 1월 ISM PMI(2/3~5일) → 제조업 반등, 서비스업은 둔화

- 美 1월 ISM 제조업지수는 48.3p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전망
- 미국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 여파로 비용 상승 및 가격 전가의 어려움이 지속됨. 기업의 심리는 아직까지 부진하며美제조업은 11개월연속위축국면이예상됨
- 반면 서비스업지수는 53.3p로 확장 국면을 유지하나 전월 대시 소폭감소할것으로예상
- 1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12월 대비 9.7p 급락하며 84.5p를 기록. 이는 2014년 5월 이후 최저치이고 펜데믹 보다낮은수치임
- 다만 견조한 임금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어 서비스업의 급격한둔화는나타나지않을것으로예상

	주요경제지표발표	매크로 / 시장 이벤트
2/2 (월)		▪ RBA 통화정책회의 ▪ 日 금정위의사록 ▪ [실적발표] 韓 삼성SDI 美 팔란티어, 월트디즈니
2/3 (화)	▪ 美 1월 ISM 제조업 PMI (C: 48.3pt, P: 47.9pt) ▪ 韓 1월 소비자물가지수 (P: +2.3%yoy) ▪ 韓 1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(P: +2.0%yoy)	▪ [실적발표] 韓 SK바이오사이언스, 한온시스템, 롯데에너지머티 美 AMD, 머크, 암젠, 화이자
2/4 (수)	▪ 유 1월 소비자물가지수 (P: +1.9%yoy) ▪ 유 12월 생산자물가지수 (P: -1.7%yoy)	▪ [실적발표] 韓 한화오션, 키움증권, 카카오뱅크, 에이피알, ISC 美 알파벳, 일라이릴리, 노바티스, 노보노디스크, 퀄컴
2/5 (목)	▪ 美 1월 ISM 서비스업 PMI (C: 53.3pt, P: 54.4pt)	▪ ECB 통화정책회의 ▪ BOE 통화정책회의 ▪ [실적발표] 韓 KB금융, 신한지주, 에코프로, 한국항공우주, SK텔레콤, LG유플러스, 한화솔루션 美 아마존, 쉘, 불룸에너지
2/6 (금)	▪ 美 1월 비농업고용 (C: +7.0만 명, P: +5.0만 명) ▪ 美 1월 실업률 (C: 4.4%, P: 4.4%)	▪ [실적발표] 韓 NAVER, 한화시스템, 삼성카드, 카카오페이, 롯데쇼핑 美 필립모리스 등

추천 종목

섹터/산업	종목/코드	편입가 (원) 편입 날짜	수익률	최근 1년간 차트	주요 실적 예상 & Valuation	투자 포인트
건설/부동산	삼성E&A (028040)	- (2월 2일)	신규편입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9,966.6 / 8,893.3 / 10,330.3 영업이익 971.6 / 722.2 / 855.3 순이익 638.7 / 617.6 / 697.2 PER (배) 4.3 / 9.9 / 8.7	▪ 사업부 재편(화공/비화공 > 화공/첨단산업/New Energy) ▪ New Energy 수주 파이프라인 집중(전체의 66%) ▪ 유가에 민감한 화공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수주 및 매출 확대 기대 ▪ 진행사업장 정산 이익 지속되어 가이던스 초과 달성 예상
그린산업	후성 (093370)	- (2월 2일)	신규편입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437.8 / 474.9 / 579.5 영업이익 (9.6) / 25.7 / 41.7 순이익 (83.4) / (2.6) / 24.9 PER (배) - / - / 46.4	▪ 배터리 소재 LiPF6 가격 상승 ▪ 테슬라향 공급시작 ▪ 반도체 특수가스도 가격 인상으로 턴어라운드 기조 강화 예상
반도체 장비	한미반도체 (042700)	177,500 (1월 19일)	+18.9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558.9 / 647.0 / 813.5 영업이익 255.4 / 297.3 / 404.3 순이익 152.6 / 283.6 / 396.5 PER (배) 52.5 / 71.3 / 50.7	▪ 기존 TC 본더 고객사들의 투자 확대와 국내 주요 칩 제조사향 신규 수주 기대 ▪ 주요 고객사들이 HBM4E까지 TC 본딩을 적용함에 따른 TC 본더 장비 강세 지속 예상 ▪ 빅 다이 본더, MSVP, EMI 실드 장비 등의 ASP 상승으로 인해 TC 본더 이외 매출까지 실적 개선에 기여할 전망
정유	S-Oil (010950)	90,100 (1월 19일)	+17.5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36,637.0 / 34,059.2 / 32,581.5 영업이익 422.2 / 245.1 / 1,539.2 순이익 (193.0) / 135.8 / 1,007.1 PER (배) - / 90.9 / 12.3	▪ 중국 구조조정에 따른 공급과잉 완화 기대감 ▪ 국제유가 반등 및 정제마진 강세 ▪ 샤힌프로젝트 가동에 따른 실적 증가
통신	RF머트리얼즈 (32760)	25,350 (1월 5일)	+29.0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44.5 / 60.2 / 81.9 영업이익 (1.5) / 6.7 / 11.6 순이익 (7.6) / 7.0 / 10.4 PER (배) - / 53.6 / 27.0	▪ 펌프레이저 전방 수요 강세 ▪ 증설 공시에 따른 2027년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 기대